

NR



한미약품

128940 기업아슈 | 제약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지속 이유

2016. 06. 24

목표주가	NR
현재주가(06/23)	695,000원

Analyst
구자용
02 369 3425
jaykoo@dongbuhappy.com

Investment Points

미국 금리인상 브렉시트 처리 기라 : 5월 23일 이후 6월 23일까지 한미약품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미국 금리 인상과 브렉시트 우려에 의한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제약 바이오 업종 전반에 대한 사향이 아니라 한미약품에 집중되고 있다.

기술 검증 시점에 따라 투자 방향 선회 : 한미약품의 역사적인 대규모 기술 수출에 대한 환호는 3월 이후 기술수출의 기대감이 중소형 제약사로 이동하고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제약업종에 대한 고평가 부담의 영향으로 투자 매력을 잃고 있었다. 그러나 5월 13일 기술수출 약물의 국내 허가승인을 시작으로 세계 학회에서 임상 결과가 발표된 시점(5/23) 이후 전환된 외국인 과 기관의 순매수가 30일 넘게 지속되면서 최근 한미약품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Comment

대규모 기술 수출 이후 불확실성 해소 : 대규모 기술 수출 이후 시장의 불확실성은, 1) 기술성 검증의 의미로, 마일스톤이 지속적으로 유입 될 것인가 2) 연구 중심 제약회사로서, 현재 인정 받는 파이프라인 가치가 유의미한가에 있었다. 한미약품은 15년 11월 자이랄과 1,000억원 규모의 표적폐암치료제 기술 수출을 마지막으로 추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하락과 함께 주가도 하향세를 유지했다. 16년 5월 23일을 기점으로 기술이전 된 약물들의 중간 성과가 발표되면서 계약 내용대로 마일스톤 수취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세계 학회에서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결과가 발표 되면서 추가 기술이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의 순매수 동향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자들이 연구 중심 제약회사로서 한미약품의 성과를 확실히 인정하고 앞으로의 사업가치에 대한 확신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적항암제 아직은 임상 초기, 그러나 잠재력 인정 :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차세대 표적항암제(약물명 : HM95573)는 아직 국내 임상상 진행 중으로 용량 결정 이전이기 때문에 성패를 가능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는 긍정적이며 기존 치료제보다 개선된 약효 메커니즘을 통해 부작용과 내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학회 이후 기술수출 기대감 고조 : 미국종양학회(ASCO)에서는 연구의 중간 점검과 신약 개발 동향, 기술 수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며, 작년 베링거인겔하임社로 기술이전한 표적폐암 치료제의 경우 14, 15년 연달아 학회에서 발표되고 15년 학회 발표 이후 2달 만에 기술계약이 이루어진 만큼 올해도 15년에 이어 미국종양학회 이후의 추가 기술수출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술수출, 현재까지 GOOD

베링거인겔하임社 :
표적폐암치료제 글로벌 임상 계획
발표

베링거인겔하임社로 8,500억원에 기술 수출한 표적폐암치료제 올무티닙은 5/13일 약물명 '올리타정' 으로 한국 식약처의 허가를 받으면서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인정되었다. 이어 6/2일 베링거인겔하임社는 대규모 글로벌 연구 계획(임상명 : ELUXA)을 발표했고, 6/3 부터 6/7일까지 열린 미국종양학회(ASCO)에서 특정 단백질 변이 양성폐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2상 시험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 및 내약성 결과를 발표했다. 베링거인겔하임社에 의해 대규모 연구 계획이 발표되었다는 것은 한미약품에서 자체 진행한 기존의 연구자료가 글로벌 기업에서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으며, 1차 치료제로서 사용 가능성에 대한 임상(임상명 : ELUXA 3)을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약물의 대상 시장이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도 가진다.

일라이릴리社
: 면역질환치료제 2상 임상 연내
진행 예정

면역질환치료제를 기술 이전한 일라이릴리社는 5/24일 류머티스관절염 환자 대상의 2상 임상시험을 연내에 진행하고, 본 치료제의 적응증을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임상을 계획 중임을 밝힘으로써 동사의 기술력이 재검증 되었고, 약물의 시장성 측면에서 가치 상승의 계기를 만들었다.

인선社 & 사노피社
: 약효 메커니즘 재확인 및
치료 영역 확대 가능성 확인

인선社 및 사노피社에 각각 기술 수출한 지속형 당뇨-비만신약은 6/10 부터 6/14일까지 열린 미국당뇨병학회(ADA)에서 5건의 추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추가적인 전임상 시험을 통해 혈당 조절 및 체중 감소에 대한 약물의 작용 메커니즘을 재확인 하였고, 고지혈증 및 비알코올성지방간염에 대한 치료 영역 확장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인선社는 연내 2상 임상 개시, 사노피社는 연내 퀀텀프로젝트 중 하나인 당뇨병치료제(성분명 : 에페글리니타이드)의 3상 임상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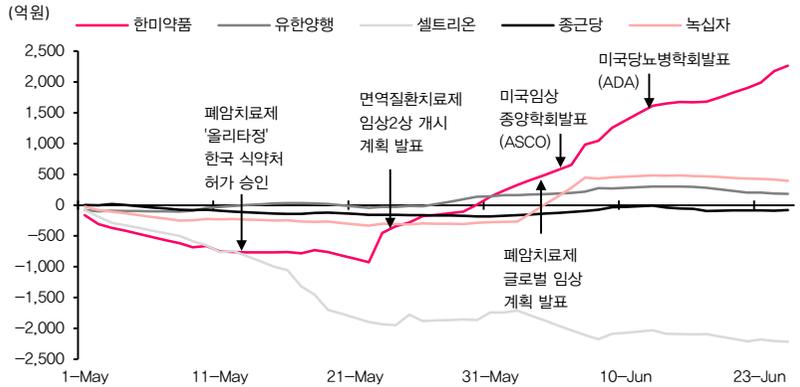
인성장호르몬 소아 대상 임상 중요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은 동사의 다음 파이프라인은 인성장호르몬(약물명 : HM10506A)과 차세대 표적항암제(약물명 : HM95573)이다. 인성장호르몬은 동사의 랩스커버리 기술을 통해 지속시간을 연장한 약물로 16년 2월 헝가리에서 임상2상이 완료 되었으며, 소아 대상의 2상 임상 또는 성인 대상의 3상 임상 결과에 따라 기술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표적항암제 미국종양학회
발표

차세대 표적항암제는 6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임상 1상 중간결과, 고행암(흑색종, 대장암, 폐암 등)에 대해 약효 용량에 대한 살마리와 임상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치료제는 변이 단백질 뿐만 아니라 신호전달 매개 단백질까지 억제하기 때문에 기존의 로슈, 노바티스의 표적항암제로 흑색종 치료시 내성이 발생하는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향후 임상 결과에 따라 다양한 고행암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시장에서 가치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1.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한미약품 순매수대금 누적추이 (16년 5월 이후)



자료: dataguide, 동부 리서치

도표 2. 미국종양학회(ASCO) 발표 및 관련 기술수출 이력

약물	일정	내용	상세내용
페암치료제 (HM61713)	14/05/30~06/03	ASCO 2014 학회 구두발표	국내 임상1,2상 동시수행 결과 (300mg용량)
	15/05/29~06/02	ASCO 2015 학회 포스터발표	국내 임상1,2상 동시수행 중간결과 (800mg용량)
	15/07/28	베링거인겔하임社 기술수출	계약금 0.5억달러, 마일스톤 6.8억달러
	16/06/03~06/07	ASCO 2016 학회 포스터발표	글로벌 임상2상 중간결과
표적항암제 (HM95573)	16/06/03~06/07	ASCO 2016 학회 포스터발표	국내 임상1상 중간결과

자료: 동부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들의 I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자 등에게 지난 6개월간 E-mail을 통해 사전 제공된 바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